

로버트 배노이, 대선지자, 제20강

이사야서 55 - 56

장 이사야 55:1-56:2 구원의 거저 제공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인 이사야 55:1-56:2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는 개인에게 무료로 구원을 제공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54장과 같은 이전 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장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종의 구속 사역에 대한 설명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사람들이 종의 일의 결과를 이용하도록 초대합니다.

이사야 55:1-3a 하나님의 초대 -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쫓지 마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에서 그 초대는 다소 일반적인 용어로 주어졌습니다. “호,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은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빵도 아닌데 왜 돈을 쓰나요? 그리고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위해 너희 수고를 하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 귀를 기울여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 생각에 한계점은 55:3a의 첫 번째 문구 이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는 초대의 정확한 성격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강조점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동안 그것은 결코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가 없이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빵도 아닌데 돈을 쓰나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가 없이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코 참된 만족이나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을 헛되이 추구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들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제시하시는 값없는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물로 나아와 포도주와 젖을 사며 좋은 것을 먹고 그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기뻐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나는 그 용어가 비유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빵도, 물도, 포도주도, 우유도 아닌, 그것들과 적절하게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삶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고 필요하며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라고 생각하며 복음 초대는 그러한 용어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자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 우물물을 마시려고 여기 왔으나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것은 무료입니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빵도 아닌데 왜 돈을 쓰나요? 그리고 당신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보세요,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을 무엇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찾으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에 대한 설명은 더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완전하고 온전한 만족을 주는 것을 너희에게 무료로 주리라.

이사야 55:3b-5 언약 - 다윗의 확실한 자비 - 복음의 확산 이제 이사야 55:3 b부터 5절을 보면 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겠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자비이다. 보라, 내가 그를 백성의 증인으로 삼고 백성의 지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느니라.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네게로 달려오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확실한 자비” 로 묘사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이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 영원한 언약은 “다윗의

확실한 긍휼” 로 묘사될 수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이제 당신은 “다윗에게 주어진 긍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이 초대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 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보좌에 앉을 후손의 계속되는 계열, 즉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이제 4절은 “보라 내가 그를 백성의 증인으로 삼고 백성의 지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노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거기에 있는 “그” 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확실한 긍휼” 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씨,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주었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중심이시며, 백성의 증인이 되고, 민족들의 지도자와 명령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5절: 이 세 구절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참조 전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은 메시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네게로 달려올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위함이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이것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시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그를 믿으려니와 그것이 곧 보이느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네게로 달려올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위함이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강조점은 현재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지금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부르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의 탁월한 부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5:6-7 복음의 초대와 용서의 필요성 6절과 7 절 에는 복음의 초대가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용서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5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 그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기도드리니 그분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가 있는 1절과 2절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나 악한 자라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단순히 실제적인 것에 굶주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여섯 살과 일곱 살이 되면 회개와 용서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께 기도드리니 그분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강조, 용서의 필요성, 죄에 대한 인식은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그것들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지점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에서 이사야는 그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취, 만족,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그것이 제공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이 진행됨에 따라 그는 회개와 용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여기 EJ Young 아래에 귀하가 인용한 35페이지에 6절을 언급한 메모가 있습니다. ‘밧다.’ 구하는 행위는 아마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분께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하다’는 평행은 ‘그를 부르다’이다. 두 표현은 함께 믿음과 순종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옛 생활 방식, 악인의 길, 불의한 사람의 길을 버리고 온 영혼이

겸손한 회개로 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일은 그가 가까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이사야 55:8-9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 이사야는 주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이제 저는 8절과 9절의 개념이 이사야서의 이 부분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내용 을 되돌아보면 , 인간의 정상적인 태도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태도는 보복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이 법에 따라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아주 다르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종 구절의 절정은 종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종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은 10절과 11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5:10-11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 10절과 11절에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눈은 하늘에서 다시 오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움을 내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게 하느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으리라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무력으로 그의 왕국을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통치자, 강력한 인물을 찾고 있었지만 대신 고통받는 종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 소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방법이다. 이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헛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당신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강조점은 10절과 11절의 앞뒤 문맥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이제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할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나가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고 그분이 보내시는 일이 형통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12-13 비유적: 산들이 노래하며 터져나온다 [자연인가, 아니면 신자인가?]

55장 12절과 13절은 그 장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여기에 제안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임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임이니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나무는 가시를 대신하여 나니 이것이 여호와께 이름이 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적인 진술이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임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 속에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12절이 비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들판의 모든 나무가 말 그대로 손뼉을 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해석에 있어서

문자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의 비유적인 표현을 부정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13절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도 비유적인 것입니까? “жат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나무는 질러를 대신하여 나니 이것이 여호와께 이름이 되리라” 나는 이 구절이 천년왕국 시대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주가 땅에서 제거되는 때까지 이전의 것 이상을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나무 대신에 전나무가 있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볼 때 그것은 12절 앞에 나오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즉, 구속받은 자의 마음에는 가시덤불과 찔레가 더 이상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전나무 그늘과 도금양나무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격은 다르며, 그것이 13절 후반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이름이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복음은 관찰 가능한 변화된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이름이 될 것이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것에 대해 독단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예시를 보면 특히 이사야서에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것과 비유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간단히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공식을 제공하는 간단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단을 내려야 하며, 판단의 차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3절에서 당신이 12절에서와 같이 종의 일의 결과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자연에서 저주가 제거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3절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3절이 단순히 가시와 영경귀의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12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의 성품에 대해 관찰 가능한 것으로 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사야 56:1-2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을 낳는다 여러분은 내가 이사야 56장 1절과 2절을 55장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56장 1절과 2절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공의를 지키라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와 그것을 지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인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56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의 삶에 선한 일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이까 .”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기꺼이 죄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공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이 일을 행하는 사람, 이를 지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인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일을 신뢰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 이 구절들은 구원의 제안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곳에 위치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받고, 값없이 받으라” 고 했습니다. 그것은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이 제안의 마지막에는 구속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종류에 대한 표시로 나옵니다.

그 구절의 마지막 문구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 입니다. Young은 여기서 안식일이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제유로 사용되며 하나님이 규정한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칼빈이 아마도 옳을 것이라고 논평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예시나 표현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규정한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이로서 두 번째 섹션이 끝났습니다.

이사야 56:3-8 복음의 초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56:3-8입니다. 복음의 초대는 어떤 인종이나 국가에도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 부분은 종의 일의 결과를 설명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내용이 종의 사역인 이사야 53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54장은 미래의 확장과 축복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55장은 복음의 부르심, 즉 구원의 거저 제공을 이용하도록 개인을 초대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초대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짧은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아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온전히 구별하셨다 말하지 말라.” 내시는 ‘보라, 나는 마른 나무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 뜻을 택하며 내 언약을 지키는 내시에게 내가 내 성안 내 집에 자녀보다 나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하셨느니라 .”

페이지 하단의 Alexander 아래에 있는 인용 페이지 34를 보십시오. 그는 3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모든 외적 장애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결격의 전체 부류는 내시의 경우로 대표됩니다. 신명기 23:1과 관련하여 이 표현은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포괄적으로, 즉 대표적으로 나타냅니다 . 그 의미는 여전히 영향을 받는 개종자들을 포함한 모든 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돌에 맞은 자나 사지가 잘린 자는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이제는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모든 외부적 장애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복음의 초대는 인종, 국가, 개인의 결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개종자에게 영향을 미쳤던 모든 제한 사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사야 56:4-5 내시와 안식일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내시들 앞에서는 나로 기뻐하는 일을 택하고 내 언약을 지키라” 고 했습니다. , 그들에게도 내가 내 성 안에 있는 내 집에 아들딸보다 나은 장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지금 내가 보기에 는 거기 있는 성벽과 거기 있는 집은 예루살렘의 것도 아니고 성전의 것도 아닌 것 같으니라. 다시 한번 더 이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54장 11절과 1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집, 즉 거처의 벽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남보석, 마노 창, 홍옥문 등으로 쌓인 그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에 대한 흥미로운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8절에서 우리는 “돌아가서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와 성령의 말씀을 읽으니” 라고 읽습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병거를 타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분께서는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찌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올라와 함께 앉기를 간청하니 그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이러하니라. 그래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 그의 굴욕 속에서 그의 심판은 취소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요?'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 같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님' 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느니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빌립이 말했습니다. '네가 온 마음으로 믿으면 될 것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에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기에는 개종자로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외되었을 내시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가족, 즉 권속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이사야 56:6-7 번제물을 받으 심 6절과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는 이방인의 자손들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다시 그 문구가 있습니다. 복수형.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를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은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모인 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로 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구약의 경륜의 예식에서 파생된 표현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번제, 그들의 희생은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필자와 그의 원래 청중에게 친숙한 용어로 묘사됩니다. 내가 보기에 여기서는 주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그러한 특정한 형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말라기 1장 11절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될 것이며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것임이니라. 내 이름을 위한 깨끗한 제물이 이방인 중에 많을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향과

순수한 제물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구약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낡은 경제에 관한 것이지만 주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여 주님을 따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6:8 그래서 8절은 그 뒤를 이어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모인 자 외에 다른 자들도 그에게로 모으리라 하셨느니라 보라 이스라엘만 모을 것이 아니요 그 외에 다른 자들도 그에게로 모으리라” 그 아래 모여 있는 자들이다.” 제가 보기엔 마지막 문구에서 이방인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4-56장 요약 종의 일의 결과 따라서 54장부터 56장은 종의 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종의 사역이 어떻게 국가적, 육체적 의미에서 제한이나 제한 없이 이 값없이 구원을 제공하며 이 제공이 땅 끝까지 갈 것인지를 봅니다.

학생 질문: 8절에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는 국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Vannoy 의 대답: 나는 이 맥락에서 후자를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큼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 메시지의 맥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참 이스라엘,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바울의 로마인의 비유를 사용하여 국내 감람나무 가지를 자르고 야생 가지에 접붙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도로 사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있어서 종이자 메시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킹 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NIV를 보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상당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 NIV는 귀하가 제안하는 것과 더 일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조점은 이미 모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모으실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이미 모인 사람들[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이방인들]을 그들에게 모으는 데 있습니다.

알았어, 여기서 그만하자. 우리 강의에 관한 한 내가 하려는 것은 이것이 이사야에 대한 토론의 끝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Daniel)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니엘 강의를 할 줄 알았는데 5분 남았는데 여기서 시작하기가 망설여지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멈추고 다음 주에 Daniel과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랜디 홀(Brandy Hall)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Carly Geiman이 대략적으로 편집함

편집자: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재연함